

## ‘인간 탄환들의 속도 대결’ 스킨레톤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봅슬레이·루지와 함께 썰매 3개 종목 중 하나

스켈레톤은 봅슬레이, 루지와 함께 썰매 3개 종목 중 하나다.

이 중 ‘인간 탄환’들의 속도 대결인 스킨레톤은 가장 짜릿한 경기로 꼽히는데, 썰매에 얹혀 머리부터 내려와 체감 속도가 가장 빠르다.

스켈레톤은 19세기 말 스위스의 산악지대에서 시작됐다.

1928년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킨레톤은 이후 완전히 자리 잡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생모리츠 대회를 끝으로 사라졌던 스킨레톤은 1948년 다시 올림픽에 등장했다.

이후 50년 넘게 자취를 감췄다가 2002년 솔트레이크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복귀했고, 이때 여자 종목도 추가됐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혼성 단체 경기가 처음 도입됐다.

스켈레톤의 썰매 길이는 80~120cm로 전체적인 골조는 강철, 목이 닿는 바닥면은 유리섬유 재질로 이뤄졌다.

몸체에는 선수가 붙잡는 핸들이 있고, 몸체 아래에는 강철 재질의 날(러너)이 달려 있다. 제동장치는 없다.

썰매에 몸을 실은 선수는 몸통과 다리를 미세하게 움직여 썰매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100분의 1초를 다투는 종목 특성상 미세한 무게 중심 변화도 레이스에 큰 영향을 준다.

썰매 무게는 남자 42kg, 여자 35kg 이하로 제한된다. 썰매와 선수의 총량을 합쳐 남자는 115kg, 여자는 92kg 이하여야 한다. 단 남자는 33kg, 여자 29kg 미만의 썰매를 사용하면 선수의 몸무게는 상관이 없다.

스켈레톤은 올림픽에서 총 4차례 주행을 시도해, 4차 시기까지 기록되는 시간을

모두 더해 합계 시간이 가장 빠른 선수가 우승한다.

2026년 밀라노 대회부터 ‘혼성 종목’ 첫 도입

역대 동계올림픽에선 영국이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5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땀다.

직전 대회인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남녀 모두 독일이 금메달을 독차지했다.

한국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부터 스킨레톤 종목에 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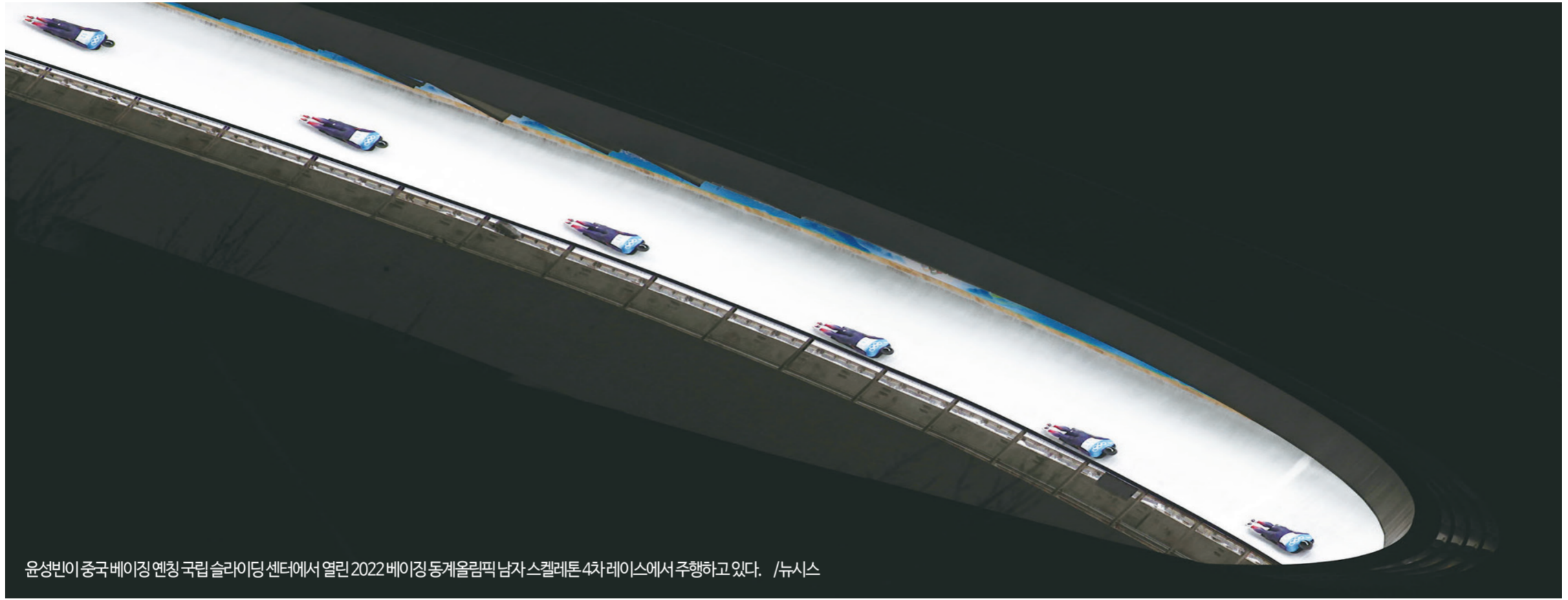
안방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대회에선 윤성빈이 한국에 첫 스킨레톤 금메달을 안겼다.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는 정승기(강원도청)가 임상을 노린다.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인 정승기는 한동안 허리 부상으로 고생하다가 이번 올림픽 시즌을 앞두고 트랙으로 복귀했다. 올 시즌 3차 월드컵에선 동메달을 따는 등 페이스가 좋다. /뉴시스



정승기가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2025-2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6차 남자 스킨레톤 경기를 펼치고 있다. 정승기는 1,2차 시기 합계 2분 17초81로 5위를 기록했다. /뉴시스



윤성빈이 중국 베이징 엔칭 국립 슬라이딩 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스킨레톤 4차 레이스에서 주행하고 있다. /뉴시스

## ‘부상 복귀’ 스킨레톤 정승기, 올림픽 포디움 ‘가자’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2022 베이징 올림픽 10위 이후 세계선수권 동메달

부상 딛고 복귀한 올 시즌 IBSF 월드컵 랭킹 6위

운동선수, 그것도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주력을 요하는 스킨레톤 선수에게 치명적인 허리 부상을 딛고 일어났다.

한국 스킨레톤의 새로운 간판으로 떠오른 정승기(강원도청)가 기세를 몰아 생애 첫 올림픽 포디움에 도전장을 내민다.

‘빙상 강국’ 대한민국에 썰매 종목은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아이언맨’ 윤성빈이 대한민국 썰매 종목 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따냈고, 이어 원윤종·전정린·서영우·김동현이 아시아 최초로 봅슬레이 4인승 은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후 트랙 특수를 노린 일시적인 활약에 그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가득했다.

그러던 가운데 정승기라는 유망주가 빠르게 성장했다.

정승기는 생애 첫 올림픽이었던 2022 베이징 대회 당시 전체 25명의 선수 중 10위에 올랐다.

해당 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랭킹 9위에 오르며 갑작스레 유망주라는 기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큰 무대에서 가능성은 충분히 드러났다.

그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12위로 대회를 마감한 윤성빈보다 좋은 성적을 내며 한국 스킨레톤의 간판 자리를 물려받았다.

올림픽 경험을 쌓은 그는 금세 세계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다.

그는 올림픽 직후인 2022~2023시즌 8차례 월드컵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목에 걸며 세계 정상 자리를 호시탐탐 노렸다.

해당 시즌 월드컵 랭킹 4위도 달성했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23년 1월 열린 IBSF 세계선수권대회에선 3위에 오



르며 생애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이어진 2023~2024시즌엔 꿈에 그리던 포디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차지했다.

정승기는 2023년 12월 프랑스 라플라뉴에서 열린 2023~2024 IBSF 월드컵 2차 대회에서 1, 2차 시기 합계 2분00초 61을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다.

그는 세계 최고의 스킨레톤 선수 영국의 맷 웨스턴(영국·2분00초69)을 0.08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승기는 이어진 3, 4차 월드컵에서도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머지않아 시련이 찾아왔다.

2024~2025시즌을 앞두고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쳤다. 수술까지 진행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를

올릴 시기에 길고 고된 재활의 시간이 이어졌다.

목욕하 재할에 임한 끝에 다행히 정승기는 올림픽 시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11월 올림픽 트랙에서 열리는 시즌 첫 월드컵에서 전체 35명 선수 중 5위에 올랐다. 우승자 웨스턴과의 차이는 단 0.28초에 불과했다.

올림픽 모의고사 격인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낸 그는 12월 3차 대회에선 3위를 기록, 포디움에 올랐다. 1년 11개월 만의 메달이었다.

그는 이어진 대회에서도 꾸준히 톱 10 안에 이름을 올리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1월 대회를 불참하고도 월드컵 랭킹 6위를 기록 중이다.

이제 정승기의 눈은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으로 향한다. 그는 유망주 꼬리표를 떼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준비를 마쳤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인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 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 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 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 경과 운암산, 종의곡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시공 운영 3년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시공 GS건설 (주)인원화/건설 HDC인대산업개발

062) 607-8338